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현대인의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조형화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박 은 진

현대인의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조형화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박 은 진

인 준 서

박은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문명의 발전은 인간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현대에 와서 그 속도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명의 발전은 인간사회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다가와 인간으로 하여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의 현명한 적응을 유도하고 있다.

눈부신 사회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업화로 인하여 점차 인간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본질이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창조한 문명에 도리어 자아를 상실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본인은, ‘현대인’이 사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발달된 문명과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구조 속에서 자아상실, 인간소외, 개성상실 등의 이유로 인간이 하나의 “기능 덩어리”로 보여 지고 있음을 심각한 현실문제로 여겨 왔다.

따라서 ‘현대인’을 주제로 인체를 분석하여 현대 문명사회에서의 인간의 형상을 상징화 하고자 하였다.

조형의 의미로서 인간의 형상은 정신과 육체로 설정하였으며, 정신은 현대인의 머리를, 육체는 현대인의 몸을 의미한다. 또한, 현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인간의 위기를 문명사회를 대변하는 구조물과 접목시켜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인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작품의 배경과 표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며 2004년에 제작한 본인의 작품 중 석사학위 청구 전에서 발표했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연구 서술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3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제 2 장 본론에서는 작품들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작품의 조형방법과 각 작품들에 대한 분석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제 3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작품들의 작업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형성 배경	3
2. 작품의 조형적 표현 방법	5
3. 작품 분석	9
III. 결론	24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 I, 혼합재료, 2004
90 X 130 X 25 (cm) 9
- 【작품 2】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 II, 혼합재료, 2004, 가변설치 11
- 【작품 3】 현대인, 합성수지, 2004, 100 X 90 X 220 (cm) 13
- 【작품 4】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 III, 혼합재료, 2004, 가변설치 15
- 【작품 5】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 IV, 혼합재료, 2004
60 X 350 X 120 (cm) 18
- 【작품 6】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 V, 혼합재료, 2004, 가변설치 21

I. 서론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¹⁾의 말에 의하면 “예술이란, 항상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들은 것들은 마음속에 솔직하게 기록하는 열성 있는 노동자다.”라 했다.

본인은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술인의 한사람으로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그 변모에 미처 적응하지 못해 인간소외현상, 자아상실의 문제 등에 부딪혀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작금의 시대에 외면할 수만은 없는 심각한 문제라 보았다.

현대인들은 과거를 돌이켜 보거나 미래를 상상하면서 현재의 좌표를 엄정하게 설정하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자신을 적응시키기에 실패함으로써 부적응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여기서 '부적응 행동'이라 함은, 산업사회의 조직원리가 과학의 발달로 인해 합리화, 표준화, 거대화, 집중화 되어가면서, 현대인들이 현실에서 낙오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이상을 포기하거나,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제한 당함으로써 나타나는 비이상적인 행위들을 의미한다.

본인은 현대인의 불규칙한 모습을 몸과 영혼, 육체와 정신으로 분류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대인들의 이러한 정신과 육체 또는 몸과 영혼의 불균형

1) 도스토예프스키 : (1821 - 1881) 러시아의 소설가. 모스크바 출생. 톨스토이와 함께 19C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이다. '뉘트'의 리얼리즘이라 불리우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내면을 추구하고 근대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작품들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본인 역시 현대인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고민과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면적인 요인을 작품들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작품들에서는 인간과 사회의 자유로운 관계를 위해 여러 구조물과 설치방법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근대 이후, 우리사회는 무한한 발전을 거듭하였고 과학의 진보, 기계문명의 발달 등으로 사회는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간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역사철학자인 이폴리트 텐²⁾은 1882년에 발표한 <예술철학>에서, 한 국가나 민족의 예술성을 결정짓는 요인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종족(*la race*), 환경 (*la milieu*), 시기 (*le moment*)라고 주장하였다. 즉 '종족'은 선천적 또는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기질과 소질, '환경'은 종족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환경적, 그리고 '시기'는 지나간 시대의 작가 또는 어느 사조가 끼치는 영향을 말한다.

텐의 이론은 예술 작품이 사회적 관계의 제약을 받고 또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환경'에 집약된다.³⁾

현대 사회는 기계화, 집중화, 거대화 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현대인들의 심한 정신적 갈등과 그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2) 최초의 현대 문학사회학자로 간주되는 프랑스의 역사가 이폴리트 텐(Hippolyte Taine :1828~1893)은 미술의 변천 양상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저서 <영국 문학사 L' Histoire de la Litterature Anglaise> (4권, 1864)에서 문학작품을 인종·환경·시대의 3요소에 의해 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았다.

3) 임영방, <미술이 걸어온 길>, 도서출판 학교재, 2003

한편 이런 사회적 시스템은 인간으로 하여금 문화와 환경변화에 순응하고 사회에 순종하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은 결국 인간이 사회적 동물 이기에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외면당했다고 의식할 때 지독한 고독과 좌절을 경험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개인을 사회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개인은 처음부터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실존 조건과의 기능적 연관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개인과 사회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불가분으로 상호 의존하는 공생의 관계라 할 수 있겠다.

본인은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불균형의 사회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상징화하였다.

본인 작품에서 특징적인 얼굴 없는 구의 형태를 한 머리는 오늘날 통신 매체나 자동화 되어가는 시스템의 과정으로 업무들은 동적인 영역 보다 자리에 앉아서 하는 정적인 영역이 보다 확대되어지는 현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들을 모두 주워 담아야 할 만큼 커져 버린 머리, 그러나 실상은 평준화, 획일화로 지식의 특수성이 소멸된 맹목적인 모방 즉, 텅 빈 머리가 이를 은유한다.

또한 머리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진 몸은 현실사회 속에서 육체적인 노력 보다는 정신적 노력에 치중되면서 문화와 환경변화에 치중되는 왜소한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현대인은 자신의 사회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못 느낄 때 소외를 받게 되고 자

4) 아놀드 하우스, <예술과 사회>, 계명대학교 출판부, p.63

신이 원하는 이상향, 즉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싶어도 시대의 큰 흐름, 사회의 흐름에 묻혀 그 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단지 그 흐름에 쫓아갈 때 소외를 느낀다.

현대사회의 인간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시간의 노예, 속도의 노예가 되어 버렸고, 이러한 과도한 정신적인 노동에 반비례하여, 육체적인 노동은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극소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과 육체는 불균형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생각하며 이를 본인 작품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2. 작품의 조형적 표현방법

본인은 위에 언급한 현대인의 내면 문제들을 현 사회와 접목시켜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 즉, 인간이 사회 속에서 흔들리는 여러 현실 문제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에 본인은 '현대인'을 매체로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부도덕한 현상으로 인하여 생각과 행동을 동일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현대인의 단편적인 모습을 담았다. 이는 불균형적인 인체의 변형과 반복적 행위를 표현하였으며, 인간이 주제를 상실한 현실 속에 정신과 육체를 개괄적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상징적 형태와 다양한 구조물 설치 방법을 통해 조형적 표현 방법을 구현하였다.

본인 작품의 주 매체인 '현대인'을 표현한 형상은 조형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작업의 형식은 조그만 것들을 크게 확대하고나 큰 것

들을 아주 작게 축소될 때 발생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거나 과장된 것으로 현대 미술에서 자주 표현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본인은 '현대인'을 작게 표현함으로써 관람하는 시선에 중점을 두었다. 즉, 제 3자의 시선이 아닌 사회와 삶의 중심부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길 바라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각의 통일성은 규모뿐만 아니라 형태, 색상, 텍스처나 방향, 각도 등의 면에서도 표현하였다.

작품에서 표현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멈춰 서있거나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몸의 움직임을 통해 방향을 구분할 뿐이다. 이렇듯 인간의 주체상실성은 인체의 반복 행위뿐만 아니라 얼굴이 없는 머리 형상과 성별을 구별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인체 형상 변형에서 보여 진다.

여기서 '변형'이란 자연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작가의 주관적 표현이 반영되어 사물과 하나의 대등한 인상을 산출함으로써 어떠한 형식적 재현 없이 자신이 바라는 외양을 제시하는 것이다.⁵⁾ 변형되어진 대상은 시각적 흥미로움을 제공하고 작가의 주관적 조형의지나 상상력을 반영한다.

본인은 '현대인'의 모습을 작가의 의지대로 변형하여 인체에 반영하였다.

1) 머리 형상

정신을 의미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양면적인 면을 내포한다.

즉, 외면상으로는 크고 선명하며 원형의 형태로써 매끄러운 느낌을 주지만, 내면 상으로는 텅 비어있는 백지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5) Susan K. Langer,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역, 홍성사, 1982, p.27

이러한 머리의 형태는 사회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반작용에 의해 표현되며 인간이 듣고 말하고, 냄새를 맡고, 느끼는 기관들을 의도적으로 없앴다.

비트겐 슈타인의 말에 따르면, “얼굴이란 몸의 ‘영혼’이다. 그것은 지상의 가장 흥미로운 표면(sur/fase)이자 몸의 가장 잘 드러나면서도 가장 표현적인 부분이다. 얼굴 풍경(facescape)은 흔히 인격적 정체성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표정 없는 군중(faceless crowd)”이란 표현은 개인적 정체성 혹은 개체성의 말소를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 볼 수 있고⁶⁾ 상대방의 존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은 머리형상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하나의 기본 형태인 원형으로써 본인 의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는 현대인의 정신을 극대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본인의 주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색채의 선택 또한 같은 의도에서 표현하였다.

2) 몸 형상

몸의 절단 방식이나, 과장과 축소 등 추상적 조형 방식으로 사회로 인한 인간의 고뇌를 인체의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인체에 부속되어 있는 손과 발 역시 형상이 불분명하여, 성별 구분을 할 수 없는 미완성의 개체는 자아 상실로 인해 정체성마저 잃어 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몸의 색은 갈색계열로써 인간 본연의 이미지와 가장 근접한 색상으로 여겼다. 갈색은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흙의 개념으로써 이는 불안한 현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정신을 답답한 도시 속에서 자연의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화되길

6) 정화열,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아카넷, 2005, p.24

바라는 순환의 의미를 내포한다.

육체의 움직임은 전체적인 설치방법이나 구조물과의 조화를 통해 연출되어진다.

3) 구조물과 설치방법

현대미술에서는 다양한 설치방법들이 있다. 과거에는 좌대를 사용하는 방법이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가지고 작품에 접목시킨다.

본인 또한 일부의 작품을 구조물을 사용한 설치방법을 선택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조물의 의미는 현 사회를 대변해 주고 있는 동시에 개인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불가분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도에서 연출하여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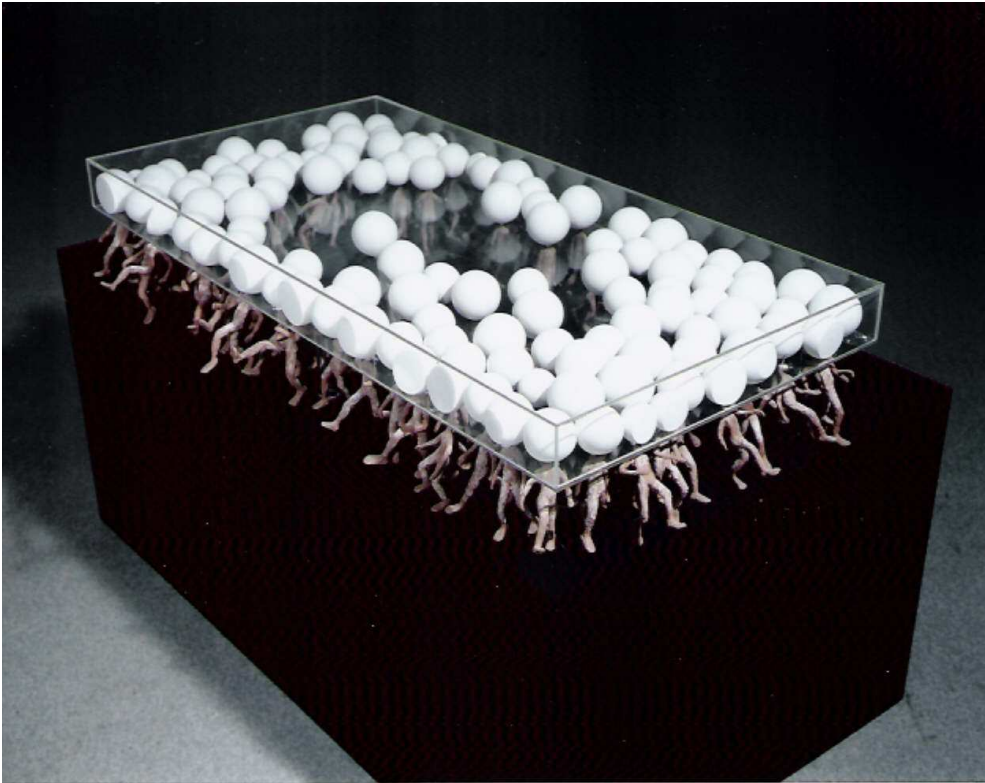
정육면체(cube)의 형태는 작업을 하는 이들에게 익숙한 형태이며 직육면체 중에서 모든 면이 정사각형인 것으로서 지극히 구축적이며 안정적이다.

[작품 1]에서는 구조물이 마치 작품의 대화 같은 역할로 보이지만 본인은 의도된 높이에 인체를 설치하여 구조물과 인체를 대비시켰다. 이는 관람하는 이에게 내려 보는 시선으로써 율동적으로 보여 지는 몸의 움직임 등을 가장 편안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의도되어졌다.

[작품 2]에서의 일률적으로 쌓아 올려진 형태는 코너에 설치되어 짐으로 인해 고립된 공간과 인간의 행위를 대비시켰다. 이러한 계단구조는 인간의 세속적 권력이나, 권위, 신분 등을 나타내기 위한 조형적 형태이다.

[작품 4]에서는 불안과 초조, 갈증, 갈망 등을 대변하는 듯한 불안정한 설치 방법은 보는 이에게 시각의 불편함을 줌으로써 강한 시각적 자극을 제시한다.

3. 작품분석



【작품 1】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1, 혼합재료, 2004

【작품 1】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1

크 기 : 90×130×25 (cm)

재 료 : 아크릴, M.D.F, 알루미늄사, 합성수지, 석고, 스티로폼

제작연도 : 2004年

제작기법 : 5T 아크릴로 사각 틀을 제단하고 아크릴 아래 면에는 사람 수대로 배치해 위치를 정한 후 드릴로 구멍을 뚫었다. 머리부분은 스티로폼에 석고를 도포한 후 가열하여 말린 다음 연마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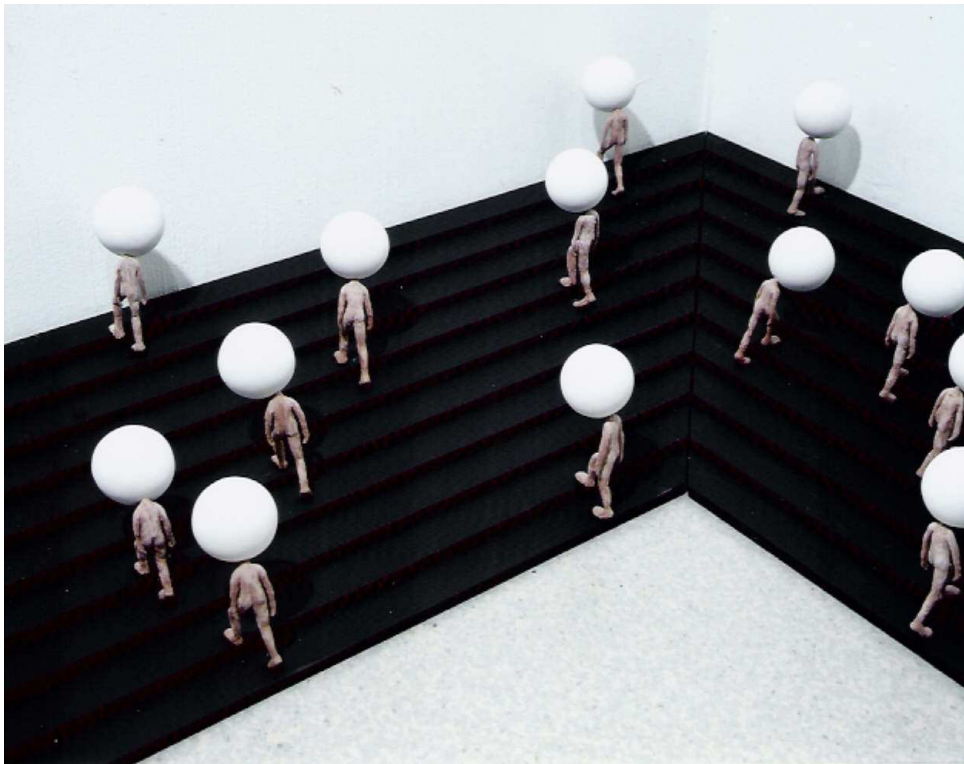
몸 부분은 알루미늄사로 골격을 만든 후 레진을 성형하여 말린 다음 연마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아크릴 박스 안에 원형을 집어 넣고 몸 형태와 연결하여 구조물 위에 배치시켰다.

주체할 수 없는 이기심으로 인해 자아를 상실한 채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이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단상이다.

세 가지 매체(몸, 머리, 구조물)가 각각의 주어지는 의미를 지니면서 현실 사회의 단편적인 과정을 부담 없이 풍자하기 위한 본인의 생각을 담고자 하였다.

투명 아크릴의 의미는 세분화되고, 고립화되어 가는 현 사회를 표현하기 위한 복합적 매체이다. 사회 안에는 현대인의 생각들이 담겨져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를 육체가 전체적으로 짊어지고 있다.

정신을 의미하는 머리와 육체를 의미하는 몸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지면서 하부구조는 상부구조를 지탱하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서 제 자리 걸음만 하는 현대인의 어리석은 행동을 강조하였다.



【작품 2】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Ⅱ, 혼합재료, 2004

【작품 2】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Ⅱ

크 기 : 가변설치

재 료 : 합성수지, M.D.F, 스티로폼, 석고, 수성페인트, 알루미늄사

제작연도 : 2004年

제작방법 : 전시장 공간에 직각으로 설치할 만한 위치의 치수를 확인한 후 5T M.D.F를 가로 173cm, 폭 50cm를 재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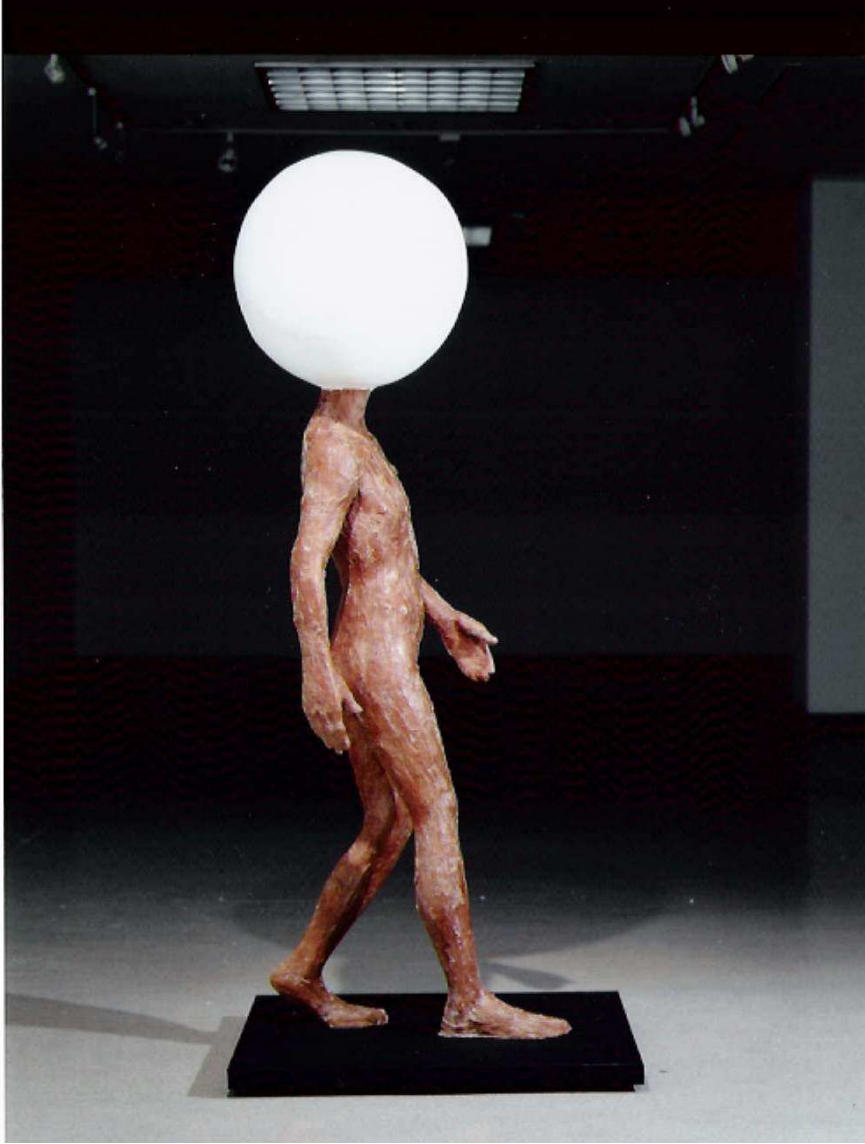
재단된 판 위에는 폭 50cm를 재단하였다. 재단한 판 위에는 폭 8cm로 좁혀가며 10개의 M.D.F를 쌓아올려 오공본드와 에어 타카로 고정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두개를 만들고 서로 맞물려 직각을 이룰 수 있게 재단하였다.

페인트로 마감한 뒤 계단 위에는 조그마한 사람을 걸어 올라가는 형태로 구조하여 배치하였다.

조형적 의미로써 계단은 인간 정신의 세속적 권력이나, 권위, 신분 등을 나타낼 때 미학적, 건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왔다.

본인은 숨 막히는 도시 속에서 개성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져 가는 도시인들의 내면 구조를 계단을 통해 조형화 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높은 곳을 오르고자 하는 인간의 상승욕구를 규칙적으로 쌓아올려진 계단이 조형적 형태에 가장 절충한 매체라 보고 현대인과 결부시켜 표현하고자 했다.

가벽을 이용한 설치방법은 막다른 현실을 대변해 주는 반면에 끝이 보이지만 인간의 반복적인 행위는 고독과 소외의 두려움으로 스스로의 의사결정 보다는 획일화 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감으로써 집단 의식 속에 휩쓸리는 현대인을 표현하였다.



【작품 3】 현대인, 합성수지, 2004

【작품 3】 현대인

크 기 : 100×90×220 (cm)

재 료 : 합성수지, 철, 아크릴 물감, 페인트

제작연도 : 2004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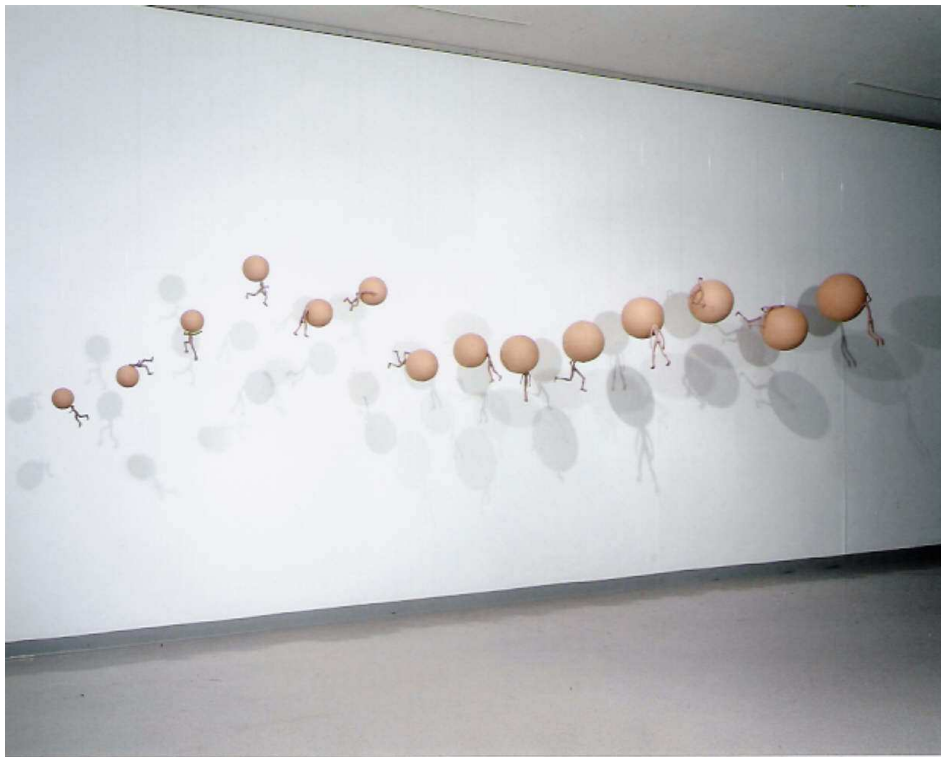
제작기법 : 점토 작업 후 합성수지로 성형

자아상실과 인간소외, 물질만능주의 등으로 인해 쇠퇴해진 현대인을 부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조형화 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몸을 인간 내면의 가장 근접한 색상인 흙색의 느낌이 나도록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하여 표현하였으며, 몸 표면에는 큰 터치효과를 통해서 인간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시각적으로 부각시켰다.

여기서 머리와 몸의 각각 주어진 형상을 합성수지로 성형하여 연결시켰다.

중성에 가까운 오묘한 인체와 무거워 보이지만 텅 비어 있는 이중적 표현의 머리는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연결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4】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Ⅲ, 혼합재료 2004

【작품 4】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III

크 기 : 가변설치

재 료 : 테라코타, 합성수지, 와이어 줄, 알루미늄사

제작연도 : 2004年

제작방법 : 머리의 형상은 청자토와 산청토를 사용하였으며, 흙의 균열을 줄이기 위해 50:50으로 섞어 14개의 서로 다른 크기로 물레를 이용하여 형상을 만들었다.

테라코타를 말리기 전 각각의 원구에 두 개의 구멍을 만들고 원형 밑 부분을 깎아낸 후 수분 없이 말려 섭씨 900도 온도에서 소성하였다.

몸은 레진을 사용하여 여러 형태로 주조하였으며, 한 구멍에는 사람을 연결하고 다른 구멍에는 와이어 줄을 연결하여 공중에 매달아 설치하였다.

이 작품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퇴되어 가는 현대인들의 나약한 모습을 설치방법과 재료를 통해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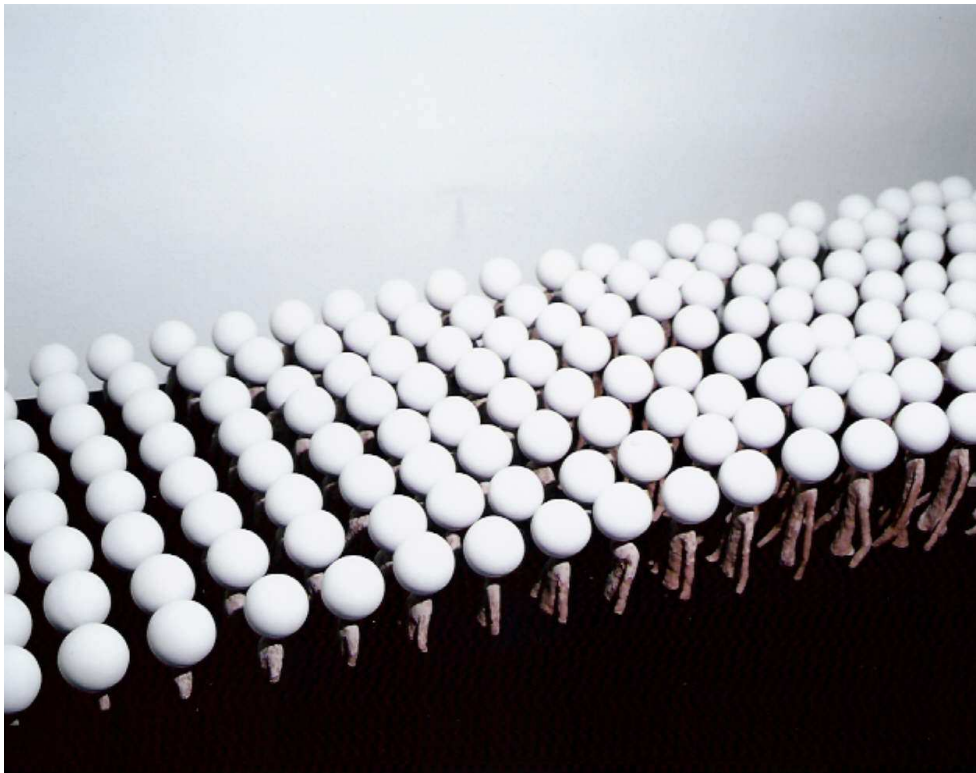
테라코타는 떨어지면 깨져버려 존재를 상실하게 되기도 하지만 깨진 흙을 다시 모아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다. 이는 불안한 현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정신을 답답한 도시 속에서 자연의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화되길 바라는 본인의 생각에서 표현하였다.

흙 (Ceramic)으로 구워진 머리의 의미는 현대인의 이성과 정신을 나타내는 함축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몸은 레진으로 성형하였으며, 색에 있어서는 몸과 머리가 같은 색상으로 이어지면서 정신과 육체가 일치되길 바라는 본인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설치방법은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한 채 공중에서 허우적 되며 외마디 비명도 없이 실오라기에 매달려있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조형화 하였다.

다른 작품의 의도와는 달리 정신은 무겁고 육체는 가벼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하였으며, 설치방법을 통해 아슬아슬한 시각의 불편함을 제안하였다



【작품 5】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IV, 혼합재료, 2004

【작품 5】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IV

크 기 : 60×350×120 (cm)

재 료 : M.D.F, 합성수지, 스티로폼, 알루미늄사, 수성페인트, 석고

제작연도 : 2004年

제작기법 : 10mm이 M.D.F를 사용하여 60×175×120 (cm)의 좌대를 만들었다.

몸은 그전 작품들과 같은 방식으로써 알루미늄사를 치수에 맞게 골격을 만든 후 레진을 붙여가며 형태를 만든 다음 연마하여 색상이 자연스럽게 발색될 수 있도록 사포로 마감 처리하였다. 머리는 스티로폼에 석고를 도포한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도록 완성도를 높였다.

좌대 위에 폭 8개, 길이 33개의 사람을 설치하기 위해 40cm의 사람부터 시작하여 1cm간격으로 점점 줄여서 결국 머리부분만 남도록 설치하였다.

좌대 표면에는 검정 수성페인트로 마감 처리하였으며, 좌대 위에 사람을 세우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어 고정하였다.

이 작품은 인간소외와 물질 만능주의 등으로 인해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들을 엔트로피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본인의 의도에서 진행하였다.

- 7) 1865년 R.E. 클라우지우스가 변화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이 물리량을 엔트로피라 이름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물질계가 흡수하는 열량 DQ 와 절대 온도 T 와의 비 $dS = dQ/T$ 로 정의 한다.

엔트로피는 무엇보다도 물질계의 열적 상태로부터 정해진 양으로서,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는 분자운동이 확률이 적은 질서 있는 상태에서부터 확률이 큰 무질서의 상태로 이동해가는 자연적 현상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분자운동에 개별성이 있는 질서 있는 상태에서 분자운동이 균일해지는 무질서상태로 이동해가는 것이다. 이들은 어느 경우 에나 엔트로피가 증가하지만 그 반대의 과정은 마치 난잡하게 흩어져 있는 실내를 원

시각적으로 보여 질 때 정확하고 규칙적이며 무겁고 어두워 보인다. 점점 사라져 소멸되어 가는 인간의 행로가 문제되기도 하지만 좌대의 영향도 있다.

작품에 사용되는 좌대의 조형적 의미는, 불안한 사회적 조직화를 모티브로 삼아 일종의 고층건물을 의인화하는 동시에 어두움으로 사라져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설치방법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좌대 위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들은 어떠한 모습의 행위도 없고, 얼굴의 표정도 없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알 수가 없다. 다만 앞을 향해 질서 있게 걸어가는 육체적인 노동에 의해 확인되어 질뿐이다.

그들이 느껴지기에는 규칙적이어서 보여서 정확하고 빈틈없어 보이지만, 나아가다 결국엔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사라지는 불균형적인 현대인들의 허무한 인생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인 것이다.

래의 정연한 상태로 정리하는 것처럼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겨가는 것이며 이 과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연적 상태로서 엔트로피는 증가하기만 한다는 말이다.

위의 설명처럼 역엔트로피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물질은 가만히 두면 망가지게 된다는 뜻이 된다.



【작품 6】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V, 혼합재료 2004

【작품 6】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NO.V

재 료 : 합성수지, 알루미늄사, 스티로폼, 석고

크 기 : 가변설치

제작연도 : 2004年

제작기법 : 20cm 정도의 사람 몸을 만들기 위해, 알루미늄사로 골격을 만들고 레진을 붙여가며 걸어가는 모습으로 형태를 만들고 굳은 다음 연마하여 색상이 자연스럽게 발색될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하였다.
머리 형태는 지금 7cm 정도의 스티로폼을 사용하여 표면 위에 석고를 도포하여 형태를 다듬은 후 사포로 연마하여 광택이 나도록 완성도를 높였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여 고정시킨 후 바닥 위에 설치하였다.

과거를 돌이켜 보거나 미래를 상상하면서 현재의 좌표를 엄정하게 설정하는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없을 때 인간이 자기를 적응시키기에 무리를 가져오며 부적응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개성도 없이 같은 모습, 같은 생각으로 한 방향만을 질주하고 있다.

몸은 8~12cm의 크기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구조하였으며, 머리는 스티로폼 위에 석고를 도포하여 다듬어갔다.

이러한 현대인들을 150개 정도 바닥 위에 놓여짐으로써 청중의 시선이 위에서 내려보게 된다.

이에 청중은 현대인이라는 매체를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작품 속의 자

아를 찾아가는 현대인의 불균형적인 형상을 통하여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서 설치하였다.

Ⅲ. 결 론

현대문명이 발달에 따른 기계화와 20C 문명적이기 속에서 현대인은 지나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과 타인과 공존하는 삶을 거부하듯 무관심과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렇다고 해서 원시생활로의 회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발전이 제시한 인간사회의 새로운 기틀을 혼자만의 공간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문명의 발달에 따른 인간 소외 현상이 빚어 낸 잘못된 인간의 행위를 되새겨 보고자 ‘현대인’이라는 형상을 조형화하게 되었다.

본인은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작품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시사할 때 비로소 훌륭한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라 믿는다.

작품은 존재하는 과정에서 점점 형태를 갖추며 빛을 발산하였고, 불만스러움조차 강한 자극으로 다가와 철저한 수정과정 또한 낱게 하였다.

한편 본인을 비롯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인간들을 잔인하리만치 냉정하게 들여다보며 비판하여야 하는 고초가 뒤따랐다.

본인의 손끝을 통해 형태를 잡아가는 일이 마치 타인의 모습을 빚듯 덤덤했지만 결국 본인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했다.

앞으로 본인의 작품 성향은 현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양면성의 본질을 ‘인간’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형상을 통하여 조형화 할 것이며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작품이 표현 되는 과정을 보여 줄 것이다. 또한 표현방법에 있어서 대상과 형식을 꾸준히 연구하여 더욱 발전된 조형언어를 구축해 작품 활동에 정진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정화열,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아카넷, 2005

다비드 르 브르통,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동문전, 2003

아놀드 하우스, <예술과 사회>, 계명대학교 출판부,

Susank. langer, <예술이란 무엇인가>, 홍성사, 1982

한림미술관,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몸과 미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임영방, <미술이 걸어온 길>, 도서출판 학교재, 2003

두산 동아백과사전

ABSTRACT

Modeling study about modern person's social image

- centering around My Work -

Park, Eun Jin
DePartment of Sculpture of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development of modern civilization changes human society and no one knows the speed of change.

The development of modern civilization comes positive and negative part, so it leads the wise adjustment to man in rapidly changing society.

The development of glaring society fertilizes human's life, but at the same time it is evident true that human's life becomes poor because of the industrialization.

After all, it is within bounds to say that the human lose the self by the creative civilization to show his true nature or ability.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civilization, although a modern person is the subject of society I think a serious problem of actuality which is displayed one's "function mass" by the self loss, human alienation,

personality loss within a developing civilization and a rapidly changing structure of society.

So I want to symbolize the human's shape of modern civilization society as the subject of "a modern person" by analyzing the human body.

As the meaning of modeling, the shape of human is established by the mind and body, and the mind means a modern person's head, and the body means a modern person's body. Also, in modern society a alienated crisis of the human is expressed by integrating the structure which represents the society of civilization.

This thesis is organized by three chapter as follows, it is a thing which describes a piece of work's background and expression method in a concrete, and among 2004' my works which is presented before the demand of a master's degree.

The first chapter - An introduction explains the background of study, object, and method.

The second chapter - The main subject is organized as the contents of work's background, the work's modeling method and contents.

The third chapter - The conclusion summarize the contents of thesis in a general way, and explain about the direction of work from now on.